

종로 광장시장 실명제 도입... 바가지 없앤다



광명교육지원청이 5일 광명시창업지원센터에서 '모의 창업 사업계획 발표 수업'을 운영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진로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연계 AI+창업 교육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이 5일 광명시창업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AI) 툴을 활용한 프로토타입 제작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주제로 '모의 창업 사업계획 발표 수업'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업은 광명 T.O.P 고교학점제 온마을캠퍼스 창업일반 교과과 학생들이 개발한 반려동물 밀키드 제작 및 레시피홍보, 신형 필기구 창업 아이디어를 인공지능(AI) 기반 툴을 활용해 시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업은 지역 창업전문가와 학교 담당교사 간 코칭(co-teaching) 형태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현장감 있는 피드백을 받으며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광명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장은 "AI 도구를 활용한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진로 탐색 역량을 동시에 길러주는 살아있는 배움이다"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마을캠퍼스를 통해 학생 맞춤형 창업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시흥소방서가 5일 시흥·안산 응급의료기관 등 서남권역 관계 기관과 응급의료협업체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소방서

시흥소방서, 의료기관 13곳과 응급의료협업체 강화 간담회

경기도 시흥소방서는 5일 시흥시보건소, 시흥안산 응급의료기관 등 서남권역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총 13개 관계기관과 함께 응급의료협업체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흥소방서는 이번 간담회가 관내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소방보건소의 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안산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체결 △각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정보 및 발전방향 논의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이송병원 선정과 응급환자 적극 수용 방안 논의 △소방 및 의료기관의 현장 예외사항 공유 등이 논의됐다.

이정용 시흥소방서장은 "응급의료협업체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시흥시의 응급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시흥=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작년부터 192개 노점 전수 조사... 연내 점용허가 부여 계획 민관 대책회의 정례회... 상거래 질서 확립·신뢰 회복 나서 20개 언어 QR메뉴·카드결제 도입... 외국인 이용 편의 높여

서울시 종로구가 6일 광장전통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점 실명제'를 비롯한 다각적인 개선 대책 추진에 나섰다.

종로구는 지난해부터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상인회 협의를 거쳐 노점 실명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구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올해 안으로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노점의 과요금 문제로 훼손된 신뢰 회복을 위해 상인회·서울시 등과 협력해 상거래 질서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월부터 민관 대책회의를

정례화해 과요금 근절과 서비스 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상인회의 자율적 노력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다국어 정보부니(QR) 메뉴시스템'을 도입했다. 먹거리 취급 노점 88개소가 참여했으며 메뉴와 사진, 가격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의 내외국인 66명 등으로 구성된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과요금 △감매 행위 △위생 △결제 △친절도 등을 비노출 점

검 방식으로 살폈다. 총 241회에 걸친 점검 결과, 89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되었고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종로구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인회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가맹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비사업자 노점 77개소가 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면서 현금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구축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의 시장 내 192개 노점의 권리자, 운영형태, 상호 등을 전수 조사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실태 개선과 노점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상인회 역시 종로구의 행정적 지원에 발맞춰 자정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해 1월을 시작으로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 제 △친절 응대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



서울시 종로구가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 상거래 질서와 신뢰 회복에 나섰다. 광장시장. 종로구

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또 위생 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이달 19일 상인회와 손잡고 청결미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청결한 시장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다"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더 갤러리 호수' 송파 대표 문화명소로... 1년간 50만 명 발길

산책로와 연결 접근성↑... MZ세대 방문객 60% 회화·조각·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 전시로 호평



서울시 송파구 '더 갤러리 호수'서 개인전을 연 팝아티스트 필립 콜버트(왼쪽)가 서강석 구청장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가 석촌호수 동호에 개관한 '더 갤러리 호수'가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후 누적 방문객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송파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6일 송파구에 따르면 1년간 회화·조각·설치·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개최됐다. △개관 2주 만에 3만 명이 찾은 '개관특별전을 시작으로 △세계적 팝아티스트 필립 콜버트의 '팝스타 행성'으로의 여행'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비탈레 개인전 'LEGAMI the Hosi' △서울시립미술관 협력전 '도시예찬' △근현대 미술 거장 김홍수 회고전 '하모니' 등 5개 전시다.

개관 이후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다채로웠다. 구는 △주인도슨트 운영 △작가와 대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송파구박물관나들이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의 전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공간

을 만들었다.

지난 여름 구는 400여 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5% 방문객이 전시에 '매우 만족'과 '만족'을 표했다. 만족한 주요 항목으로는 전시 주제와 내용 40%, 동선·조명 배치 등 전시장 구성이 23% 순이었다. 10대에서 30대까지 MZ세대 방문객이 60% 이상을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관람객 방문 경로가 눈길을 끌었다. 산책 중 미술관을 찾은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고 주변 홍보물 영향도 13%였다.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더 갤러리 호수'는 설계 당시부터 예술에 대한 문턱을 낮춘 담장 없는 미술관으로 기획됐다. 특히 건물 입면과 산책로와 연결성을 강화해 산책 중 부담 없이 들렀다 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동선을 계

획했다. 그 결과 누구나 들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호수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편안한 문화공간이 조성됐다.

이처럼 공공성을 높여 평가받아 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석촌호수변 문화예술시설로 입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개관 1주년을 맞아 구는 다음달 9일부터 '청년아티스트센터' 입주 작가 10인의 결과보고전을 개최한다. 단순 작품 전시를 넘어 청년예술가의 창작 과정과 예술적 성장 여정을 조명하는 전시다. 작업실 일부를 전시장으로 옮겨와 관람객이 작업 과정을 생생하게 느끼고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도록 구성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문화예술은 도시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이고,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더 갤러리 호수가 높아진 주민들의 문화 수준에 부응하고 더욱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서초구, 산불 예방 총력... "24시간 빈틈없이 지킨다"

서울시 서초구가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산불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서초구의 산림면적은 1850ha로 청계산·우면산·인능산·구룡산 등 많은 산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항상 산불 발생을 예의주시하며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10월부터 시작해 다음달 15일까지는 산불기동대 61명을 편성해 '서초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근무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산불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무인감시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관내 산불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화차량과 소화시설 등의 산불장비를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구는 산불이 확산되거나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 동남권(서초·강동·강남·송파·서초대공원)의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

대책본부 운영... 근무자 상주 무인감시카메라로 수시 확인 군·경 협력... 신속 대응 공조



서울시 서초구 산불기동대가 우면산 일대에서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서초구

화를 위해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함께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산불발생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장비의 성능 향상과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 정상에 화재 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호스를 정상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고압수관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및 블랙박스형 폐쇄회로(CC)TV를 갖추는 등 현대화된 예방·진화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구는 청계산·우면산 등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관' 제57조에 따르면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의 소중한 산림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주민들도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양천구 '보육타운' 개관... 돌봄·체험 한곳에

어린이집·키즈카페 등 조성 육아지원 기능 통합 복합공간

서울시 양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육·돌봄·체험 기능을 한데 모은 종합보육시설 '양천구 보육타운'을 개관했다.

6일 양천구에 따르면 30년 된 구립 어린이집 부지를 새롭게 단장해 조성한 시설은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4569㎡ 규모로 복합공간으로 지역 내 흩어져 있던 육아지원 기능을 통합한 양천구 최초의 통합형 보육플랫폼이다. 보육타운은 부모와 아이가 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층별 주요 시설로는 1.2층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자리해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3층에는 '키움센터 8호점'이 들어서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고 영유아 가정 및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위한 '요리체험실'도 마련된다.



서울시 양천구 '보육타운'에서 어린이들이 새로 조성된 실내 놀이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양천구

4층에는 0-3세 전용 놀이공간 '서울형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이 조성돼 초기 발달단계의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다.

5층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 상담, 보육교사 교육, 자원 연계 등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종합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6일 개관식을 열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육아지원 플랫폼의 출범을 알렸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